

제40절의 감추어진 역사 - 제26부

에스겔 제7호

Jeff Pippenger

2026-08-12

내가 '요시야의 바퀴'라고 규정하는 예언적 계보는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거부하며 반역한 기원전 1097년에 시작된다. 처음 세 왕(사울, 다윗, 솔로몬)은 기원전 1097년부터 기원전 977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사십 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규정된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여로보암과 북방 열 지파의 반역은 처음 세 왕의 계보를 마감하고, 북왕국과 남왕국 양편에서 왕들의 계보를 시작한다.

처음 세 왕은 많은 진리의 상징이지만,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진리의 바퀴들 가운데 하나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 곧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며, 이들은 다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표상한다.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는 다시 주전 516년부터 주전 457년까지 이르는 그들의 세 칙령을 표상하며, 이는 다시 각각 1798년과 1844년 4월 19일과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표상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도래의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글자 그대로 반복되며, 이로써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예언적 노선이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 노선에는 요시야 왕의 바퀴가 포함되며, 그것은 주전 977년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벤엘과 단의 반역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물둘

여로보암은 이십이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기 때문이며, 이로써 그의 증언은 이십이가 표상하는 역사와 결부된다. 곧 이십이는 스물두째 날에 나타난 다니엘의 마라 환상이 보여 주듯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며, 또한 이백이십이라는 수와도 연결되는데, 이십이는 그 수의 십일조이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린 날수는 이십이 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20.

'속죄(atonement)'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10월 22일, 곧 열째 달(그레고리력)에 시작되었다. 열 곱하기 이십이는 이백이십이다. 여로보암은 벤엘과 단 두 곳에 거짓 제단들을 세웠으므로, 교회(벤엘: 교회를 뜻함)와 국가(단: 심판을 뜻함)의 결합과 관련된 일요일의 위조된 예배를 상징한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으며, 거기에서 나아가 브누엘을 건축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라.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롭도다. 이스라엘아, 보라,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로다 하고, 하나는 뱀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려고 단까지 갔음이라. 그가 또 산당의 전을 짓고 레위의 자손이 아닌,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닷셋날에 정하고, 제단에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뱀엘에서도 이같이 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뱀엘에 세웠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닷셋날에 뱀엘에 자기가 만든 제단에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제정하고,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25-33.

북방의 열 지파의 기초 역사에는 반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일과 또한 아론의 반역 및 금송아지 사건으로 예표된 것이었다. 아론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기초 역사에서 일어났고, 여로보암의 반역은 북방 열 지파의 기초 역사에서 일어났다. “이 줄 저 줄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 두 기초적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원하였던 기초적 반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계보이다.

490

에스겔서에 제시된 거룩한 역사에는 사백구십 년의 세 시기가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왕들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관련되며, 또 다른 하나는 군대와 관련된다. 이 세 시기는 아론의 반역(성소), 사울의 반역(군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반역(왕)에 부합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상징 가운데, 예언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는 왕 사울이며,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여로보암은 왕이었다.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보니, 보라,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므로, 백성이 서로 말하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고, 그곳 사람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말이 속담이 되었다. 사무엘상 10:11, 12.

승리하는 교회는 서른 살 된 한 선지자와, 서른 살 된 한 제사장과, 서른 살 된 한 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삼십 세에 시작한 에스겔과, 삼십 세에 봉사를 시작한 요셉과, 삼십 세에 왕이 되기 시작한 다윗 왕으로 대표된다. 승리하는 교회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여덟장에서 온 땅에 가득한 성전으로 표상되며, 또한 일곱 교회에 속한 여덟째 교회인 빌라델비아이다.

기원전 977년에 시작된 요시야의 예언적 계통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서 끝난다. 2023년 12월 31일에 시작된 십사만 사천의 정결과 인침은, 미가엘이 내려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부활시키실 때 시작되었다. 2023년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이십이 년 만에 도래하였는데, 이는 1798년의 외국인법과 선동법이 1776년 독립선언 이후 이십이 년 만에 도래한 것과 같다. 여로보암의 이십이 년 통치는 요시야의 예언이 제시되었던 기원전 977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열왕기상 13장의 불순종한 선지자는 모세가 아론의 배도를 대면하였고 사무엘이 왕을 원하던 무리를 대면하였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배도를

대면하였다. 불순종한 선지자와 모세와 사무엘의 기별로 대표되는 이러한 근본적인 배도들에 대한 대면은, 일요일 법에서의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표상한다. 그것은 기가 선포하는 경고의 기별이며, 여로보암의 역사에서는 “표징”이 수반된 요시야의 예언으로 대표된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벳엘에 이르렀고,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더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한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라.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더라. 그 날에 그가 한 징조를 주며 이르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벳엘에서 제단을 향하여 외치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여로보암 왕이 듣고, 제단에서 손을 떼며 이르되, 그를 잡으라, 하였더니 그가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되었더라.

제단도 갈라지고 제단 위의 재가 쏟아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징대로 된 것이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몸을 쉬게 하라. 내가 그대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벳엘에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3:1-10.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네 집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먹기를 거절한 것은, 헤롯이 살로메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상응한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이르렀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그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때라. 그런데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또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니라. 그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매, 그 여자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니라. 마가복음 6:21-24.

헤롯이 자기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맹세한 일은 그의 생일에 일어났다. 헤롯은 로마의 상징이며,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은 다니엘 7장의 로마의 열 부분으로의 분열과 2장의 열 발가락으로 예표된다. 그의 생일은 일요일 법령에서 여섯째 왕국이 일곱째 왕국으로 대체될 때 표지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으로서의 국제연합의 생일이다. 장차 곧 이를 일요일 법령에서, 여로보암의 북방 열 지파로 표상된 열 왕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시간 동안 자기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요한계시록 17:17.

에스겔 4장의 예언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에스겔이 직접 낱자를 밝히는 '열세' 차례를 확인할 것이다. 그 열세 개의 이정표는 대체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뉜다. 애굽으로 표상된 세상은 여섯 차례 직접적인 낱자와 연결되어 제시되며, 두로는 한 차례 언급되고, 나머지 여섯 차례는 예루살렘이 그 대상이다. 이 책은 주전 592년에 시작되는데, 이는 열일곱 번째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이며, 에스겔 40장 1절은 주전 573년 10월 22일을 그 주기의 끝으로 밝힌다. 희년 주기는 9/11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까지의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를 나타내며, 이는 다시 2023년 12월 31일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까지의 바로 그 역사의 한 프랙털 속에서 표상된다. 이 두 기간은 모두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에 의해 예표되었다.

1840년 8월 11일, 다른 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먹어야 할 작은 책을 가져오셨다. 동일한 천사께서 다시 9/11에 강림하셔서 인치는 때의 시작을 표하셨다. 동일한 천사께서 2023년 12월 31일에 강림하셔서, 큰 성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두 증인을, 곧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부활시키셨다. 그 강림은 인치는 때의 마감 기간을 표하였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프랙털 기간 안에서, 제사장 에스겔은 하늘 성전에 관한 환상을 받는다. 그때에 그는 병어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만 말한다. 그의 그러한 상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표상된, 곧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요한의 경우와 같이, 에스겔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손에 있던 책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또한 애가와 애통과 재앙의 책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도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내게로 뻗어 있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것의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 2:8-10.

이 기별은 삼중 기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로써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에스겔 9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와 그 땅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치는 것은 셋째 천사의 인치는 기별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머물러 있던 그룹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분께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세마포 입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한가운데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 9:3, 4.

인을 받는 자들은 교회의 죄와 그 땅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있으며, 에스겔의 증언은 교회와 세상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애굽의 역사 위에 짜여 있다.

“경건의 누룩이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에, 빛 가운데 서 있는 그 작은 무리는 그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올려질 것인데, 이는 그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령은 이러하다. ‘너는 성읍 한가운데로,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 욕되게 하던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비록 많은 이들이 여전히 종교의 형식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여되어 있었다.” 『교회증언』, 5권, 209, 210.

예레미야애가의 문맥에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예표하는 것은 애가와 애통과 화인데, 애가와 애통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이며, 셋째는 화의 기별이니, 이는 계시록 7장의 네 붙잡는 천사들에 의하여 억제되고 있는 동풍의 상징이다.

이집트

에스겔서에는 열세 개의 날짜가 언급되어 있다. 이집트에 관한 날짜들의 첫 번째는 에스겔 29:1이며, 그것은 기원전 587년을 가리킨다.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열이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 두고 그와 온 애굽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한가운데에 누워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큰 용이라. 에스겔 29:1-3.

기원전 587년은 예루살렘 멸망 일 년 반 전에 시작된 포위의 해이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무너뜨리실 것이며, 그 무너뜨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집트의 용을 신뢰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 장의 끝에 이르러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선언이 주어지는데, 이로써 성경 예언의 열 왕이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현대 바벨론, 곧 그 일곱 가운데서 나온 여덟째 왕국에게 넘겨주는 때가 확인된다. 그 예언은 그 장의 끝에 제시된 바와 같이 17년 후인 기원전 571년에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29장에는 이집트와 관련된 연대 표기의 처음과 마지막 언급이 담겨 있다.

제이십칠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이 두로를 치려고 그의 군대로 크게 수고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머리가 벗겨지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가 두로를 치려고 수고한 그 봉사에 대하여는 그도 그의 군대도 두로에게서 아무 샅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가고 그 재물을 탈취하며 그 노략물을 빼앗을 것이라. 그것이 그의 군대의 샅이 되리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그가 수고한 대가로 내가 그에게 애굽 땅을 주었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의 뿔이 돌아나게 하겠고,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네 입을 열리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9:17-21.

제20년 첫째 달 초하루는 에스겔의 열세 날짜 가운데 마지막 날짜를 나타내며, 주전 573년 10월 22일 이후에 해당하는 유일한 날짜이다. 이는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에 나오는 북방 왕에게 애굽이 주어지는 때를 나타내는 동시에, 열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왕국에게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넘겨주는 시점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뿔"이 움트는 때에 성취된다.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은 동풍의 날에 움튼다.

장차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움이 돌아 열매로 세상 지면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사야 27:8.

에스겔 29:17이 성취되고, 애굽의 용이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때에 교황권의 짐승에게 넘겨질 때, 늦은 비가 이스라엘 위에 한량없이 부어질 것이다. 그 비는 9/11에 뿌림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땅에 내려오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것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쉬어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나누어 주신 행위는,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소나기에 앞선 몇 방울의 빗방울과 같았다." 예언의 신, 제3권, 243.

에스겔의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은 포위의 해인 기원전 587년에 선포되었고, '열일곱' 해 후에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은 '열일곱'이라는 숫자가 표상하는 기간에 성취되므로,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표상한다. 그것은 에스겔 9장에 묘사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 동안 성취될 것이다. 인치는 때에 늦은 비가 부어지는데, 먼저 9/11에서 뿌림으로서 부어지고, 그다음 일요일 법령 때에 충만한 부어짐으로 임한다. 그것은 이사야에 따르면 "동풍의 날"에 성취되며, 이슬람은 동풍이고, 이슬람은 셋째 "화"이다. 에스겔이 먹어야 했던 기별은 삼중 기별이었으며, 그 셋째 부분은 화의 기별이었다.

에스겔의 열세 개의 연대가 명시된 메시지들은 예루살렘과 애굽과 두로와 관련하여 선포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열셋"이라는 수로 상징되는 반역을 다루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에스겔의 연대에 대한 고찰을 계속할 것이다.